

여전히 높은 세계의 벽...한국경영 줄줄이 예선 탈락



대한민국 경영 선수들이 22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왼쪽부터 이주호(100m 배영), 백수연(100m 평영), 임다솔(200m 배영), 이호준(200m 자유형).

/특별취재단=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임다솔 18위·이주호 25위
백수연·이호준·한다경
경영 5개 종목 모두 준결 실패
“스타들과 경쟁, 성장 기회”

한국 수영이 여전히 높은 세계의 벽을 절감했다. 하지만 ‘태극 전사’들은 꿈의 무대였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또 다른 꿈을 꾸는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영 이틀째 경기가 열린 22일, 한국 선수들은 이날 오전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5개 종목 예선에 모두 참가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진출한 선수는 없었다. 가장 먼저 임다솔(21·아산시청)이 여자 100m 배영에 출전했지만 1분00초86으로 63명 중 18위에 올랐다. 임다솔은 100m(1분00초16)와 200m(2분09초49) 한국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상위 16명에게 주어지는 준결승 출전권은 얻지 못했다. 남자 배영 100m 한국기록(54초17)을 가지고 있는 이주호(24·아산시청)도 25위에 머물면서 다음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이주호의 이날 기록은 54초56이었다. 다음 주자는 여자 평영 100m의 백수연(28·광주시체육회)이었다. 개인 통산 7번째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 ‘만인나’도 1분08초52, 전체 55명 중 21위에 만족해야 했다. 남자 자유형 200m 경기에 출전한 이호준(18·영호고)의 표정도 밝지 못했다. 이호준은 1분48초89에 레이스를 끝내면서

3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열린 예선 마지막 경기는 여자 자유형 1500m였다. ‘한국신기록 보유자’ 한다경(19·전북체육회)이 혼신의 질주를 했지만 자신이 보유한 한국 기록(16분32초65)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16분49초13가 기록됐다. 한다경도 29명 중 22위로 처지면서 이날 한국 대표팀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선수는 나오지 않았다. 아쉬움 속에서도 이들은 다음 목표를 향한 전진을 다짐했다. 허리디스크로 훈련이 부족했던 임다솔

은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면서도 “감을 잡았다. 주 종목인 200m가 낫았으니까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많은 응원에 힘이 났다”고 언급한 이주호도 “한국기록을 다시 깨는 게 목표”라며 배영 200m를 내다봤다. 세계적인 스타들도 이들의 다음 도전에 힘을 준다. 한다경은 마침내 자신의 롤모델인 ‘수영 여제’ 케시 리데키(미국)를 만났다. 경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던 한다경은 리데키 이야기가 나오자 “아”하는 탄성과 함께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어 취재진을 웃

게 했다. 한다경은 “같은 조에서 뛰고 싶었는데 예선에서 다른 조가 돼서 아쉬웠다”며 “탈의실에서 처음 봤다. 말을 걸어보고 싶었는데 못 걸어봤다. 아무래도 시험 중간이라 리데키 선수도 집중해야 하니까 아직 말을 못 걸어봤다”고 수줍게 웃었다. 한국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지만, 그만큼 이를 수 있는 목표가 많기에, 또 세계적인 스타들과의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에 이번 대회는 한국 수영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

한달 반 눈물의 드라마 쓴 한국 여자수구 ‘아름다운 꼴찌’

마지막 경기 쿠바전 0-30 완패

실력은 미흡했지만 선수들의 간절함은 관중을 감동 시키기에 충분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목표였던 ‘1골’을 달성하며 감동을 선사한 한국 여자수구대표팀이 22일 쿠바전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국 여자수구대표팀이 22일 오전 8시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수구 15-16위 결정전에서 쿠바에 0-30으로 졌다. 한국 선수들은 쿠바 선수들의 수비에 번번이 막히며 이렇다 할 찬스 한 번 잡지 못했다. 신체조건이 좋은 쿠바에 잇따라 역습을 허용하며 영패했다. 하지만 선수들은 경기내내 1골을 넣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코뼈 부상이 완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경기 출장한 주장 오희지(전남수영연맹)는 이날 같은 부위에 공을 맞아 피를 쏟았지만 대표팀 골문을 지키는 투혼을 발휘했다. 쿠바와의 최종전이 끝나자 한국 선수들은 서로 격려했다.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한 한국은 5전 전패, 최하위(16위)를 기록하는 등 호된 세



한국 여자수구대표팀이 지난 16일 러시아전을 마친 뒤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계 무대 신고식을 치르며 대회를 마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여자 수영의 역사를 새로 작성했다. 우리나라에는 여자 수구대표팀은 물론 여자 수구 전문 선수도 전무했다. 대한수영연맹은 지난 5월 26일 선발전을 통해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출전할 여자 수구 대표팀 13명을 뽑았다. 선발전을 통해 급조

된 여자수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대부분 경영 선수로, 수영에는 능숙하지만 수구는 모두 초심자들이다. 하지만 두달여간의 합숙을 통해 대회에 나선 이들은 경영시절 느끼지 못한 관중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다. 주장 오희지는 “대회가 끝나더라도 고향 영암으로 내려가서 클럽팀을 꾸리고 싶다. 대표팀 동료들도 언제든 내려와서 함께

운동했으면 좋겠다”며 “대회가 끝났으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생들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며 “정말 수구가 하고 싶으면 우리끼리 모여 또 한 번 도전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현영 기자 young@

출발대 장비 고장 ‘나홀로 3번 스타트’

남자 배영 100m 사비오니 3차 시도끝 13위 준결 진출

경영 경기가 한창인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출발대의 장비가 연이어 고장을 일으키면서 선수들의 불만을 샀다. 22일 오전에 열린 남자 배영 100m 예선경기. 7초 6번 레인에 입수해 출발 준비를 마친 이탈리아의 시모네 사비오니(23)는 출발신호와 동시에 발판을 힘차게 밟았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발판의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추진력을 받지 못한 것이다. 배영은 종목 특성상 입수한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발판을 발을 고정시킨 채 준비 자세를 취한다. 다른 선수들이 레이스를 펼치는 동안 경기장을 빠져나온 그는 심판장에게 이 부분을 어필했다. 그리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비오니는 다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번에는 ‘나홀로’ 배영이었다. 사비오니는 많은 관중의 박수를 받으며 홀로 레인에 입수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발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사비오니는 3차 시도 끝에 어렵게 자신의 기

록을 완성할 수 있었다. 그리고 53.85초를 기록한 사비오니는 13위로 16위까지 진출하는 준결승에 올랐다. 경기를 마친 사비오니는 “경기 전 심판진들에게 발판에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2차 시도에도 발판이 고장 나면서 심리적으로 매우 흔들렸다. 다행히 준결승에 진출했지만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사비오니는 지난 2017년 12월에 열린 유럽선수권대회 200m 혼영 계영 결선 경기에서도 발판이 고장나 8위에 머물렀던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 한편 앞서 5초 8레인에서 경기를 치른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달린 카터(23)도 재경기 끝에 어렵게 준결승에 진출했다. 그는 첫 시기에 55초33을 기록해 전체 30위로 18명이 겨루는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지만, 발판 고장으로 인한 재경기 권한을 부여받고 홀로 뛰어 54초03로 기록을 끌어올렸다. 16위에 오른 카터는 17위를 0.01초 차이로 누르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특별취재단=김민식 기자 mskim@

HNT 하나투어

★ 7~8월 한정운항 ★

무안공항 출발 몽골(울란바타르)

▶ 몽골미아트항공
8월 5일(월), 9일(금), 13일(화), 17일(토) 3박5일

▶ 제주항공
7월 26일~8월 23일 매주(화) 3박4일, (금) 4박5일

7~8월 최고기온 22°C

몽골에서 시원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추천포인트 ▶ ① 쏟아지는 별감상 ② 게르숙박 ③ 초원승마체험

savepack CNPF85	하나팩 CNPF87	하나 트래킹 & 레포츠 CNK87
특가 가격이 혜택	추천 완전정복일정	이색 트래킹2회
몽골·테를지 4일, 5일	몽골·테를지 4일, 5일	몽골 트래킹 5일
799,000원~	1,249,000원~	1,49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게르2박 숙박 #테를지국립공원	#게르1박 숙박 #4성급호텔 #승마체험	#노소핑 #특식3회 #게르1박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함.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도착비자] 도착비자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자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됩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 [특별이벤트]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교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황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 여행 유의 사항 ■ 여행 자제 ■ 철수 권고 ■ 여행 금지